

장기(長鬢) 유배기 다산(茶山) 시의 향방(向方)과 성격*

김 은 미**

차 례

- | | |
|--------------------------|-------------------------------|
| 1. 서론 | 3. 장기 시기 다산 시의 성격 |
| 2. 장기 시기 다산 시의 방향 | 1) 자기 문제로의 몰두와 성찰 |
| 1) 관찰자로서의 향외적(向外的)
시선 | 2) 징조 시절에 대한 회고와 회상 |
| 2) 자기 응시의 향내적(向內的)
시선 | 3) 탈(脫) 관념적 현실 인식의 발아
(發芽) |
| | 4. 결론 |

국문초록

다산 정약용은 1801년의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경상도 장기에서 220여 일 동안 유배의 삶을 살았다. 실질적인 첫 유배였던 장기 유배가 다산 삶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다산 시의 향방과 성격을 살피는 것은 다산 시문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다산은 장기에 머무는 세 계절 동안 60제 160수의 시를 남겼는데, 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9791)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시기 다산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험과 백성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담긴 향외적(向外的) 시선의 시보다는 유배라는 자기 문제에 대한 향내적(向內的) 시선의 시를 더 많이 썼다. 비자발적 격리 상태에 있던 다산은 시를 통해 자신의 그리움과 향수, 비애와 비탄 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특히 정조 시절과 한양에 대한 회고와 회상의 정서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유배는 백성의 삶을 보다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백성의 삶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이 시기 다산의 시에는 예상보다 완곡하게 나타난다. 백성의 삶에 대해 유배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확인되지만, 이 시기 다산에게는 백성의 어려움에 대한 각성보다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고심이 더 컸던 것이다.

시를 통해 보자면, 장기에 있는 동안 다산은 유배의 충격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었다.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게는 되었으나, 세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관심을 시에 드러내지는 않았다. 경세가이자 비판적 지식인인 다산에게도 유배의 충격은 그만큼 컸던 것이다. 그 충격이 완화되기도 전에 다산은 서울로 소환되었고 강진으로 다시 유배되었다. 그러나, 장기 유배기를 통해 시작된 백성의 삶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험과 인식은 이후 비판적 각성으로 구체화되어 강진 유배기에는 현실 비판적인 시로 형상화 된다.

주제어: 다산, 정약용, 신유사육, 유배시, 장기 유배, 정조, 사회시, 우화시, 기민시

1. 서론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유배기¹⁾ 시에 대해서는 그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연구의 상당 부분은 강진 유배기 작품에 집중되었고, 장기 유배기 다산 시에 대해서는 두 편의 개괄적 연구와 몇 편의 작품론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일차로 장기 유배기의 시간적 부피감에 기인한다. 장기에서 보낸 220여 일은 18년이라는 강진 유배기에 비해 상당히 짧고, 이에 따른 다산 삶의 흔적에도 양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또한, 강진 유배기의 몇몇 작품이 보여주는 강렬한 주제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난 강진 시기의 작품들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1801년 봄에 시작된 장기 유배는 다산의 실질적인 첫 유배였다. 때로는 서울에서 때로는 마재에서, 나이 마흔이 되도록 그런대로 평탄하게 삶을 영위해 왔던 다산이 유배라는 충격적 경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 장기 유배이다. 다산은 이미 1790년 충청도 해미에서 열흘 동안 유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유배라기보다는 정조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까웠다. 그러나, 장기 유배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형벌이었고, 이후 다산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못 했다. 장기 유배는 다산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충격이 장기 유배기 다산의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다산 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간 장기 시기의 다산 시를 연구해 왔다. 그런데 장기 유배 초기의 시인 『기성잡시(鬢城雜詩) 26수』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다산의 꺾어진 현실 인식과 사회 비판의 태도는 교화의 주체라는 자리를 벗어난 유배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사실적 힘을 얻게 된 것”²⁾일 수도 있겠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 1) 다산은 1801년 2월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3월에 경상도 장기현으로 유배되었고, 같은 해 11월 황사영 백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로 송환된 후 다시 전라도 강진현으로 유배되어 거기서 18년을 지낸 후에야 해배되었다.
- 2) 김은미, 『<기성잡시(鬢城雜詩)>에 나타난 다산의 두 가지 시선』, 『한국문학논총』

장기 시기의 다산 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향방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성잡시』에서 출발하여 장기 시기 다산 시 전체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산³⁾은 장기에서 지내는 동안 총 60제 160수의 시를 남겼는데,⁴⁾ 이에 대해서는 김봉남이 처음으로 개관하였다. 김봉남은 장기 유배기 다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을 재구하는 연구에서, 다산이 장기 유배기 시를 통해 비탄과 절망을 형상화 하였으며, 회한과 자조를 드러내면서도 위안과 극복을 놓치지 않은 한편, 지배층에 대한 풍자를 담았다고 이해하였다.⁵⁾ 장기 유배기 다산의 시를 통해 다산 내면 의식의 특징적 양상을 살폈다 할 수 있다.

김윤규도 장기 유배기 다산 시의 성격을 살핀 바 있다.⁶⁾ 김윤규는 다산의 장기 유배기 시 거의 전편을 관통하는 정서로 좌절감을 꼽았다. 다산의 장기 유배기가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삶이 좌절되고 강제로 정지된 침울한 삶으로 바뀌는 변곡점”⁷⁾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는 좌절감과 연군의 회상, 문제 있는 현실에 대한 발견과 응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⁸⁾고 파악한 것이다.

84집, 한국문학회, 2020.4, 167쪽.

3) 정약용이 다산(茶山)이라는 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강진 유배기의 일로, 이보다 앞선 장기 유배기는 다산이라는 호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기이다. 그럼에도, 학술 논문에서의 직관적 이해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장기 유배기 정약용의 시를 다룬 이 연구에서도 정약용을 다산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4) 장기 유배기에 쓴 반시반문(半詩半文)의 『석지부(惜志賦)』는 이 작품 수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산의 문집에도 『석지부』는 시집 권1에 실려 있어, 장기 유배기의 시들이 권4에 실린 것과는 구별된다. 장기 시기 다산이 남긴 시에 대해 김봉남은 60제 158수, 김윤규는 61제 186수로 파악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김봉남, 『다산의 장기(長鬢) 유배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諸樣相)』, 『한국문학연구』 38권, 한국문학회, 2006.12.

6) 김윤규, 『장기(長鬢) 유배기 다산 시의 성격』, 『동방한문학』 57집, 동방한문학회, 2013.

7) 김윤규 (2013) 277쪽.

8) 김윤규 (2013) 277쪽.

김봉남과 김운규의 연구는 장기 유배기 다산의 시에 주목하고 이를 고찰한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두 연구 모두, 이 시기 다산 시를 개관하고 거기서 확인되는 시의 특징을 분석해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연구 방법은 장기 유배기 다산 시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서의 부분 부분이 개별적으로 이해될 뿐, 그런 특징들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런 개별적 특징들의 나열은 다산 시의 여러 특징들이 동질과 동량으로 여겨지는 착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시 역시 다산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식의 향방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의식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데, 시가 개별적으로 돌출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선 연구들의 성과를 참고하는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산 시의 변화상에 더욱 집중하여 이 시기 다산 시의 향방과 성격을 살필 것이다.⁹⁾ 장기 시기 다산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시로 썼는가. 유배 상황에 놓인 다산은 어떤 시각으로 자기와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했는가. 이 시기는 다산에게 어떤 시기였으며, 이후 다산 문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다산에게는 장기 유배가 실질적인 첫 유배였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큰 환란이었다. 국문을 받는 충격적 경험 이후 가문의 위기에 봉착한 채 장기에 유배된 다산이 그 충격에 어떻게 대면하고 적응했는지, 혹은 그 충격을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했는지를 장기 유배기 다산의 시는 잘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교화의 주체일 수 없었던 다산이 지척에서 민(民)의 삶을 목격하면서 비로소 꺾인 현실 인식과 사회 비판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필자의 자문에 대한 답도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산 시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작품을 읽고 있는 다산 문집의 체계와 이 순서를 보정한 후대의 연구들 덕분이다. 여기에서도 다산의 문집 게재 순서를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 장기 시기 다산 시의 방향

다산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산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연결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에 나타난 다산의 시선을 세계에 대한 향내(向外)의 시선과 자기 문제에 대한 향외(向內)의 시선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시기의 다산 시를 이해하려 한다. 시에 나타난 다산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그 시선의 의미를 고찰하려 하는 것이다.¹⁰⁾

1) 관찰자로서의 향외적(向外的) 시선

유배는 익숙했던 자신의 세계와 비자발적으로 격리되는 경험이다. 친숙했던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분리된 다산은 이제 새로 경험하는 낯선 환경에 강제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장기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다산의 시선은 유배 초기의 시 『기성잡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은 이 시에서 “장기 여인의 말씨와 머리꾸밈새, 장기 지방의 살풍경(殺風景), 장기의 생활상과 특산물 등”¹¹⁾ 자신의 새로운 환경에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초기의 이 경험은 낯설고도 강렬했다. 모든 감각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시에서 다산은, 화난 듯 애교부리는 듯 독특한 장기 여인의 말씨를¹²⁾ 청각적으로 인식하고, 생선기름을 짜서 쓰느라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비린내를¹³⁾ 후각적으로 경험하며, 목책을 치고 그

10) 필자는 다산의 장기 유배 초기의 시 『기성잡시』를 분석하면서 이런 접근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 향내와 향외는 다산이 시에서 드러낸 관심의 방향에 착안한 것이다. 관심의 주된 방향이 자신과 내면을 향하는 경우는 향내, 외부와 세계를 향하는 경우는 향외로 구분하였다. 김은미 (2020.4) 참고.

11) 김은미 (2020.4) 6쪽.

12) “女音如慍復如嬌 孫穆書中未盡描”, 『기성잡시』 제6수,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위에 다시 그물을 둘러 호랑이를 방비하는 장기의 스산한 울타리를¹⁴⁾ 시각적으로 포착한다. 새로 접하게 된 낯선 세계에 대해 감각을 동원하여 경험하고 이해하는 다산의 관찰자적 시선이 장기 유배 초기의 시에 드러나는 것이다.

다산의 관찰자적 시선은 다른 이들의 언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에도 녹아 있다. 문어, 해구신, 뇌록(磊碌) 등이 장기의 산물(産物)이라는 다산의 진술은 지방민의 이야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이며, 장기의 뇌록 산출에 대한 생각¹⁵⁾을 시에 담아낸 것은 장기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관찰자적 시선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한 것이다.

견문에 담긴 관찰자적 시선은 「아가사(兒哥詞)」와 「해랑행(海狼行)」에서도 확인된다. 장기의 현실적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가사」와 「해랑행」 두 시는 모두 제목에서부터 장기 방언에 대한 다산의 견문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해녀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한 시 「아가사」에서 ‘아가’는 장기 방언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장기에서 보고 들은 술피의 상태를 적은 시 「해랑행」에서 ‘해랑’은 술피를 한자화 한 말이기 때문이다.¹⁶⁾

13) “新榨魚油腥滿家 青蘇不種況芝麻”, 『기성잡시』 제7수.

14) “樹柵家家二丈強 欄頭施罟挿長槍 問渠何苦防如許 終古鬢城壯虎狼”, 『기성잡시』 제5수.

15) 뇌록은 장기현 북쪽의 뇌성산(磊城山)에서 나는 녹색 돌이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직물의 염색은 제용감에서 담당하는데, 장기의 뇌록은 제용감으로 가는 공물 목록에 들지 않았다. 그 덕분에 백성들이 공물에 시달리지 않았고, 공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도적으로 뇌록 생산을 외면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서, 지금도 장기에는 뇌록이 많다는 것이 다산의 이해이다. 김은미 (2020.4) 158-159쪽 참고.

16) 송재소는 다산의 시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의 한 구절 “나는 조선인, 조선 시 즐겨 쓰리”에서 ‘조선시 선언’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다산의 주체적 문학 정신을 강조하면서 다산의 시에서 이런 조선시 정신이 드러난 예를 살핀 바 있다. 송재소, 『다산시 연구-부(附) 다산연보(茶山年譜)-』, 서울:창작사, 1986, 33-44쪽. 그런데, 다산이 고유어 혹은 지역 방언을 한자화 해서 시어로 사용한 그 시작은 장기 유배기였다.

兒哥詞

아가 노래

兒哥身不着一絲兒

아가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出沒鯨海如清池

잔 바다를 맑은 연못 드나들 듯하네

尻高首下鷺入水

꽁무니 높이고 머리는 아래로 곧장 물에 들어가

花鴨依然戲漣漪

오리처럼 자연스레 잔물결을 타네

洄文徐合人不見

소용돌이 무늬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은 안 보여

一壺汎汎行水面

박 한 통만 등실등실 수면에서 흔들리네

忽舉頭出如水鼠

홀연히 물쥐같이 머리통을 내밀고서

劃然一嘯身隨轉

휘파람 한 번 부니 몸이 따라 구르네

研螺九孔大如掌

아홉 구멍짜리 전복은 손바닥만 해

貴人廚下充餼膳

귀한 양반 부엌에서 안줏감 되지만

有時蚌鷓粘石齒

때로는 황새 탐내는 대합조개처럼 돌에 딱 붙어

있어

能者於斯亦抵死

능숙한 이도 그때는 죽을 지경이라지

嗚呼兒哥之死何足言

아아, 아가가 죽는 것을 어찌 말하랴

名途熱客皆泗水

벼슬길 열객들도 모두 자맥질하는데

해녀의 물질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아가사』는 새로운 목격에 대한 다산의 관찰이 중요한 시작(詩作) 동기가 되었다. 다산이 해녀의 모습과 행동, 해녀의 생리를 그려내는 데 시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시에서 다산은 자신의 목격 너머, 물질이라는 경이로운 행위의 이면도 보고 있다. 해녀의 물질은 젊은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바다에 드나들어야 할 정도로 민망한 일일 뿐 아니라, 여차하면 능숙한 사람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아가는 이렇게 민망하고도 위험한 물질을 하며 부모와 함께 며느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찰로만 이 시를 채우지는 않았다. 해녀의 삶을 보며 자신이 떠나온 환로(宦路)와의 유사성도 생각한다. 값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큰 전복에 욕심을 냈다가는 그 일에 능숙한

해녀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보면서, 벼슬길에 들어선 선비들도 그런 점에서는 물에서 헤엄치는 아가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욕망이 과할 때는 처신에 능숙한 자라도 언제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곳, 그곳을 벼슬길로 인식하는 것이다. 해녀의 물질이라는 새로운 목격의 현장에서 자기 현재 처지의 배경적 원인이 된 환로에서의 위험을 떠올리고 있는 다산의 모습은, 다산의 관찰자적 시선이 결국은 자기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랑행』에서 다산은 장기 바다에서 보고 들었을 솔피의 생태를 시에 그리고 있다.¹⁷⁾ 시의 중심은 해랑(海狼)이다. 시에서 다산은 해랑과 고래를 대등하게 다루는 대신, 솔피들이 힘을 합쳐 고래를 죽이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 고기를 멸절시킨 고래가 이 싸움의 원인이었다거나 고래 역시 솔피 못지않은 악(惡)이라거나 하는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드넓은 바다를 두고도 겨우 먹이 싸움 때문에 기어이 고래를 죽이고야 마는 솔피의 잔혹한 공격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솔피, ‘해랑행’인 것이다.

다산은 고래와 솔피의 싸움을 그리면서 솔피의 포악하고 잔인한 면을 더 부각하였다. 공격 행위의 무자비함과 잔혹함을 강조한 것이다. 기껏해야 먹이 싸움이라며 그 공격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한편, 드넓은 바다가 있는데도 공존 대신 공격을 선택하는 솔피의 행동을 비판한¹⁸⁾ 것은,

17) “海狼狼身而獺皮 行處十百群相隨 水中打圍捷如飛 欸忽揜襲漁不知 長鯨一吸魚千石 長鯨一過魚無跡 狼不逢魚恨長鯨 擬殺長鯨發謀策 一群衝鯨首 一群繞鯨後 一群伺鯨左 一群犯鯨右 一群沈水仰鯨腹 一群騰躍令鯨負 上下四方齊發號 抓膚肌齧何殘暴 鯨吼如雷口噴水 海波鼎沸晴虹起 虹光漸微波漸平 嗚呼哀哉鯨已死 獨夫不遑敵衆力 小黠乃能殲巨惡 汝輩血戰胡至此 本意不過爭飲食 瀛海莽洋浩無岸 汝輩何不揚鬚掉尾相休息”, 『海狼行』,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18) 고래와 솔피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김나혜, 『다산의 우화시 연구-오죽어행(烏鰂魚行)·이노행(狸奴行)·충식송(蟲食松)·해랑행(海狼行) 등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 문화』 53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8, 291-314쪽 참고.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것은 『해랑행』이 그만큼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래와 솔피의 상징성이

사방에서 가해지던 공격 속에서 괴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상황을 다산이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솔피의 공격적 행태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소환하게 한 것이다. 관찰자로서 솔피를 바라보던 향외의 시선이 어느새 다산 자신의 문제로 향하고 있는 것을 이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배 초기 『기성잡시』에 나타났던 관찰자적 시선은 다산이 여름에 쓴 민요풍의 『장기농가(長鬢農歌) 10장』에서 다시 확인된다. 『장기농가』는 장기의 일상적 풍경과, 그 이면의 남루한 농촌의 삶 사이를 오가는 시이다. 시에서 다산은, 추석을 기다리는 며느리¹⁹⁾, 담배 농사²⁰⁾, 새로 깎 병아리를 지키는 어린 딸²¹⁾, 늙은 부부²²⁾, 배추 농사²³⁾, 바다 석류²⁴⁾ 등을 소재로 하여 농촌의 풍경 그 자체를 시로 그려내며 농촌의 일상에 대한 시선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채 익지도 않은 보리로 죽을 끓여 연명하는 농촌의 보릿고개²⁵⁾에 대해 은근한 어조로 상층의 관심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래와 솔피의 상징하는 바가 정합성을 얻기 어려운 것은 처음부터 고래와 솔피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한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다산이 고래와 솔피를 통해 시에서 어떤 것을 말하려 했다고 보다는, 현대에도 능동적 포식자로 칭해지는 범고래 즉 솔피의 공격성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고 이해하였다. 장기 유배기 시의 정서적 추이를 고려할 때, 『해랑행』을 쓴 이 시기는 다산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담은 시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아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19) “秧歌哀婉水如油 嗔怪兒哥別樣羞 白苧新襦黃苧帔 籠中十襲待中秋”, 『장기농가』 제2수,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 20) “曉雨廉纖合種煙 煙苗移插小籬邊 今春別學英陽法 要販金絲度一年”, 『장기농가』 제3수.
- 21) “鷄子新生小似拳 嫩黃毛色絕堪憐 誰言弱女糜虛祿 堅坐中庭看嚇鳶”, 『장기농가』 제5수.
- 22) “糲麻初剪牡麻鋤 公姥蓬頭夜始梳 蹴起僉知休早臥 風爐吹火改纈車”, 『장기농가』 제6수.
- 23) “菘葉新畦割半庭 苦遭蟲蝕穴星星 那將訓練臺前法 恰見芭蕉一樣青”, 『장기농가』 제9수.
- 24) “野人花草醬罌邊 不過鷄冠與鳳仙 無用海榴朱似火 晚春移在客窓前”, 『장기농가』 제10수.

중용하는가 하면, 관노의 시비가 두려워서 심을 수 없는 수박²⁶⁾, 잡는 대로 어포로 만들어 관가에 바쳐야 하는 넘치²⁷⁾, 동래 하납(下納)에 동원되는 송아지²⁸⁾ 등을 시의 제재로 삼아 백성의 어려움을 시에 쓰기도 한다. 농가의 일상적 풍경에 백성의 어려운 삶을 드문드문 직조한 것이다.

이 시에서 다산의 시선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장기의 농민에게로 향해 있다.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 모내기에서 나서야 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담배 모종을 심어둔 울 밭과 호박을 심어놓은 사립문가의 풍경, 솔개를 쫓으며 병아리를 지키는 어린 아이와 노동이 끝난 후 티격대며 밤을 맞은 늙은 부부의 정경, 백성들의 상차림, 매어놓은 송아지, 구멍 송송 난 배추, 맨드라미와 석류에 차례로 시선을 보낸다. 시에 잠깐씩 다산의 그림자가 비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시의 중심은 아니다. 비변사 대감에게 풋보리죽을 올렸으면 했던 것은 백성들이 겪는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그들도 알았으면 했기 때문이며, 석류를 객창 앞으로 옮겨 심는 것도 장기 사람들이 키우는 화초가 맨드라미나 봉선화 정도라는 사실을 본 때문이었다. 이 시에서 다산은 관찰자인 것이다. 이것은 관찰자적 시선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문제로 귀결되는 「아가사」나 「해랑행」과는 또 다른 면모이며, 일상의 풍경에 더하여 백성의 곤경이 이 시기 다산의 관찰자적 시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점이다.

25) “麥嶺崎嶇似太行 天中過後始登場 誰將一椀熬青麩 分與籌司大監嘗”, 「장기농가」 제1수.

26) “新吐南瓜兩葉肥 夜來抽蔓絡柴扉 平生不種西瓜子 剛怕官奴惹是非”, 「장기농가」 제4수.

27) “蒿葉團包麥飯吞 合同椒醬與葱根 今年比目猶難得 盡作乾鱸入縣門”, 「장기농가」 제6수.

28) “不教黃犢入瓜田 移繫西庭碌礪邊 里正曉來穿鼻去 東萊下納始裝船”, 「장기농가」 제7수.

2) 자기 응시의 향내적(向內的) 시선

장기 시기 다산의 시에서는 유배객의 울울(鬱鬱)한 심사가 지속적으로 감지된다. 다산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²⁹⁾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데다 습증이 심해져서 몸에 마비도 온 상태이다.³⁰⁾ 다산은 자신의 상황을 자조하기도 하지만,³¹⁾ 한편으로는 자신이 직면한 괴로운 삶을 인정하고 수용해 보려고도 한다. 구덩이처럼 느껴지는 장기의 삶을 하늘이 준 탕목(湯沐)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평지처럼 여기려 해 보는 것이다.³²⁾ 그러나 억울함을 털어버리지는 못 한다. 쇠도 녹일 수 있을 것 같던 그 구설(口舌)의 돌팔매는 잊을 수가 없다.³³⁾ 그런데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탄과 자조에 머물 뿐,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³⁴⁾ 이런 다산의 시름과 괴로움은 봄 내내 다산의 시에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3월 9일 장기에 도착했으니, 다산이 장기에서 지낸 봄과 여름은 그 물리적 시간이 거의 같았다. 그런데 다산은 봄보다 여름에 더 많은 시를 썼다. 봄의 시는 9제 62수였던 데 비해 여름의 시는 46제 82수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9제와 46제라는 시제의 분량에서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봄보다 여름에 ‘시를 쓴 순간’이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제목을 정하고

29) “豈無緩步看山意 只得深居念罪愆”, 『기성잡시』 제19수.

30) “病濕經春癱瘓成 北脾不慣喫南烹”, 『기성잡시』 제17수.

31) 『자소(自笑)』,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2) “破書千卷將何措 坎窞如夷是汝功”, 『자소』 제9수

33) “衆口銷金太母知 叢拳下石莫驚疑”, 『자소』 제10수

34) 김봉남은 『자소』의 특히 제7수를 인용하면서, “다산은 환난(患難)을 겪은 후에 세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한때 회한(悔恨)과 자조(自嘲)에 빠져 있던 자아에서 탈출하여 생동하는 자연과 그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민중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괴로운 생각은 하지 않고 구름 따라 물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였다.”고 이 부분을 이해하였다. 김봉남 (2006) 377쪽. 그러나 시의 제목과 맥락을 고려하면, 또 장기 유배기 다산 시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시를 쓸 때에도 다산은 여전히 자신의 괴로움에 잠겨 있었음이 시 곳곳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연작시를 썼든 틈틈이 쓴 시를 모아 제목을 정했든, 시를 쓰겠다고 생각한 시작(詩作)의 순간이 봄보다 여름에 더 많았던 것이다. 이것은 다산의 정서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배 초기였던 봄에 다산이 아직 감정의 격랑 속에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고 여름을 맞으면서는 전보다 감정이 정돈되었고 그래서 봄보다는 더 자주 시를 썼다고 볼 수 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면서, 적어도 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안정은 되찾은 것이었다.

물론, 여름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다산의 시름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름에 쓴 많은 시에서도 다산은 여전히 자신의 향수와 그리움, 우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천거팔취(遷居八趣) 8수』³⁵⁾는 유배객으로 자기를 인식한 다산이 자신의 ‘취’를 보여주는 시이다. 문예이론에서 취는 “시인이 외부景物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심미적 정취”³⁶⁾를 의미하는데, 이 시를 보면 이 시기의 다산이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서 어떤 정서를 갖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시에서 다산은 자신의 취 여덟 가지로부터 시상을 풀어낸다. 그것은 각각 음풍(吟風), 농월(弄月), 간운(看雲), 대우(對雨), 등산(登山), 임수(臨水), 방화(訪花), 수류(隨柳)이다. 그런데 이때 여덟 가지景物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다산의 정취는 한결같이 향수로 수렴된다. 유배지 장기에서 무엇을 하든, 다산은 유배 상황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에 도착한 때부터 다산의 향수는 한결같았다. 고향을 떠나 있다면 누구든 향수를 품을 수 있겠지만, 유배객의 향수는 더 강하고 애절하다. 유배는 비자발적 격리이며, 종료 시점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강제적 분리기 때문이다.

여름에 쓴 또 다른 시 『희작초계도(戲作苕溪圖)』³⁷⁾에 따르면, 다산은

35)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6) 정우봉, 『조선후기 문예이론에 있어 취(趣) 개념과 그 의미』, 『한문학보』 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436쪽.

37) “子瞻謫南海 愈疾峨嵋圖 我今欲畫苕溪看 世無畫工將誰 試點水墨水墨作粉本 墨

고향 마재의 소내[菴溪]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볼 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귀양지 남해에서 자신의 고향 풍경과 비슷한 아미산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랠던 소식(蘇軾, 1036~1101)처럼, 다산도 마재를 그림으로 그리며 향수를 달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그림 속의 ‘집[吾廬]’을 보면서 서성거릴 뿐이다.³⁸⁾ 마음을 달래려 했던 처음의 의도와 달리, 고향에 갈 수 없는 스스로의 처지를 오히려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산의 향수는 이 시기에 쓴 시경체의 시에서도 한결같이 나타난다. 이런 점은 『시경(詩經)』과 다산 시를 관련지어 연구했던 이전 연구에서의 여러 시각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다산 시와 《시경》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개 《시경》의 찬미와 풍자가 다산 시에 구현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³⁹⁾ 또 이런 점을 다산의 문학관과도 관련지었다. 도(道)와 문(文)의 분리를 부정했던 다산이 “현실성을 상실하고 타락한 문학을 극복하여 실천적 진실과 문학이 통합되어야”⁴⁰⁾ 한다고 생각했고, 문에는 여러 사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도를 담아야 한다는⁴¹⁾ 문학론을 개진했으며, 이런 문학론을 특히 그의

痕狼藉如鴉塗 粉本屢更手漸熟 山形水色猶模糊 唐突移描上綃面 掛之客堂西北隅
翠麓縈廻立鐵馬 奇岩轟削飛金鳧 藍子洲邊芳草綠 石湖亭北明沙鋪 風帆遙識筆灘
過 津艤似趁龜陰呼 黔山半入碧雲杳 白屏迥立斜陽孤 天畔峯巉見僧院 水鍾地勢
尤相符 松檜蔭門吾亭也 梨花滿庭吾廬乎 吾廬在彼不得往 使我對此空踟躕”, 『희작초계도』,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8) “吾廬在彼不得往 使我對此空踟躕”, 『희작초계도』, 장진엽은 53제 62수에 달하는 다산의 제화시를 고찰하면서, 정서적 차원의 필요를 위해 실경을 대신한 실경산수화를 창작하고 감상한 사례를 『희작초계도』가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吾廬在彼不得往”에 시의가 응축되어 있다고 이해하였다. 장진엽, 『다산 정약용의 제화시 연구』, 『동양학』 84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25-26쪽 참고.

39) 전경원, 『다산 정약용의 사언시(四言詩)와 시경론(詩經論) 및 시인식(詩認識)의 상관성』, 『우리어문연구』 28집, 우리어문학회, 2007.6, 250-251쪽 참고.

40) 김홍규, 『다산의 문학론에 있어서의 도(道)와 문(文)』, 『현상과 인식』 2권 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78.4, 89쪽.

41) 송재소, 『다산 정약용의 문학론』, 『대동문화연구』 1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사언시 시경체 작품들로 형상화하였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경》 관련 논의들에서 거론된 다산 시는 대개 강진 유배기의 작품들로, 장기 유배기의 시경체 작품에서는 이런 시각과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 시기 시경체 세 작품은 향수로 일관한 「채갈[采葛遷人自傷也父子兄弟離析焉], 향수를 일으키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슬퍼하는 「유산[西山遷人之思也離其室家不能安土焉], 스스로의 상황을 슬퍼하는 「동문[東門遷人自悼也],」으로,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그 주제는 모두 유배지에서의 향수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장기 유배기 다산의 관심은 찬미 혹은 풍자의 대상인 ‘세계’가 아니라 아직 ‘자기’에게 더 많이 향하고 있음을 시경체의 시들 역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장기의 다산이 가을에 쓴 시는 5제 16수인데, 이 시기의 시에서도 향수와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秋懷

가을의 회포

藍子洲西是石湖
菰煙蘆雨碧模糊
小臣不復南柯夢
願作江邊一釣徒⁴²⁾

남자주 서쪽이 석호인데
갈대숲 안개비에 푸른 듯 흐렸다네
소신은 남가일몽 다시는 꾸지 않고
강가에서 낚시꾼이나 되려합니다

燕母將雛習遠飛
七分歸思著烏衣
喃喃刺刺皆囁語
纔得秋風棄我歸⁴³⁾

제비가 새끼에게 멀리 날기 가르치니
돌아갈 생각에 오의(烏衣)를 입히네
나불나불 지지배배 모두가 거짓말
갈바람 불어오면 날 버리고 갈 거면서

장기에서 가을을 맞은 다산의 눈에는 장기가 아닌 고향 마재의 풍경

연구원, 1984, 147쪽 참고.

42) 제1수

43) 제2수

이 떠오른다. 다산은 안개비 속에서 푸른 듯 흐린 듯 몽환적이던 석호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석호는 남자주의 서쪽에 있는데, 남자주는 다산에게 고향 마재와 거의 같은 의미였다.⁴⁴⁾

유배생활과 향수로 지친 다산의 모습은 제2수에도 나타난다. 가을이 되고 날이 차가워지면 강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비의 당연한 생태인데도 다산은 떠나갈 제비에 대해 서운해 하면서 심지어 제비가 자신을 버리고 간다고 표현한다. 때가 되면 돌아갈 수 있는 제비와 달리, 언저쪽에 나 고향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이 그 이면에 있어서이다. 다산은 이 무렵에도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쓴 시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과 비탄도 확인된다. 이웃 사람이 고깃국을 가져와 술을 권하자 그 술을 마시고 취해서 쓴 시⁴⁵⁾에서는 초사를 읽다 말고 다시 눕는다⁴⁶⁾ 다산의 모습이 나타난다. 초사를 읽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⁴⁷⁾이라 볼 수 있다. 여름에 쓴 시에서도 다산은 초사를 읽고 있었다.⁴⁸⁾ 충직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에 대한 ‘구변’을 시의 문면에 드러낼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다산에게는 없다. 누명을 쓰고 있

44) 다산의 나이 35세 때 쓴 시 『주과월계(舟過粵谿)』에 따르면, 충주에 성묘를 다녀오던 다산은 험한 월계를 지나고 고향이 가까워지자 안도감을 드러내는데, 이때 고향의 지표가 남자주였다. “森東群山赴粵谿 巴猿曾到此間啼 西來氣色鄉園近 藍子洲邊綠樹齊”, 『주과월계』,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45) 『秋夜獨坐隣人餽魚羹以侑酒欣然一醉』,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46) “楚詞吟罷還高枕 一任寒蟬繞砌鳴”, 『秋夜獨坐隣人餽魚羹以侑酒欣然一醉』.

47) 다산이 쓴 이가환(1742~1801)의 묘지명에는, 불우한 처지에 있던 이가환이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옹기 위해 초사와 구가를 선택했다는 진술이 있다. 초사는 정치적 불우함을 드러내는 데 적합했고 다산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산 시에 초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첫 유배지인 해미로 귀양 가라는 첩지를 받으면서부터였다. 김은미, 『다산 <석지부(措志賦)>에 대한 고찰』, 『퇴계학보』 148집, 퇴계학 연구원, 2020.12, 248-249쪽 참조.

48) 『科頭兀坐讀九辯』, 『快雨行』,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다는 점에서는 공야장(公冶長)과 마찬가지로이지만⁴⁹⁾, 공야장이 누명 쓴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사위로 삼기까지 한 공자 같은 존재가 다산에게는 없는 것이다.⁵⁰⁾ 그래서, 구변을 읽기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다산은, 초사를 읽다가도 다시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산은 장기에서 세 계절을 지내는 동안, 자기 문제에 대한 시를 주로 썼다. 유배라는 자신의 상황에 기인한 향수와 시름, 비탄 등을 드러내는 향내적 시선의 시를 많이 썼고, 관찰자로서의 향외적 시선에서 출발한 시도 종종 자신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장기 시절의 다산은 ‘세계’보다는 ‘자기’를 더 많이 더 자주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첫 유배의 충격과 강도가 다산에게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기 다산 시를 이해할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다산의 고심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장기 시기 다산 시의 성격

1) 자기 문제로의 몰두와 성찰

장기 시기 다산의 시에는 향내와 향외의 시선이 함께 나타나지만, 이 시기의 다산은 향외적 시선의 시보다는 향내적 시선의 시를 훨씬 더 많이 썼다. 다산은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산이 자기 문제에 더욱 몰두하고 침잠한 것은 유배 때문이었다. 국법이니 수용해야 하고 또 수용할 수밖에 없어 장기까지 온 다산이지만, 자신의 유배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다산은 유

49) “於斯沒齒可無怨 公冶當年亦縲紲”, 『復次前韻寄二子』, 제4권

50) “余內視其的矚兮 雖糾譎亦何傷 治聆禽而速縲兮 尼訟枉而名揚 載信釋而中馭兮 晦師崇而息攻”, 『惜志賦』,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1.

배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에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자신이 겪는 지금의 이 곤경은 당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1797년 다산은 정조에게 『변방사동부승지소(辨謗辭同副承旨疏)』를 올렸고, 이를 읽은 정조로부터 다산은 천주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비답(批答)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다산으로서는, 그로부터 몇 해나 지나고 정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을 천주교와 얽어 유배 보낸 것을 수궁할 수 없었다. 장기에 머무는 동안 다산은 저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확인했다. 『석지부』를 지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항변했고,⁵¹⁾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과 『이발기발변(理發氣發辨)』을 저술하여 신유박해가 천주교와 유교의 갈등이 아닌 남인과 노론 간 당쟁의 결과였다는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 이단사설(異端邪說)과 이단(異端)을 구별하여 인식한 다산에게 천주교는 “성리학의 이론적 곤경을 극복하고 유학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여 국가 사회를 개혁”⁵²⁾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적 방편의 하나로,⁵³⁾ 이단사설이 아닌 이단일 뿐이었다. 그러니 젊은 날에 천주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마흔이 된 지금에 와서 장기에 유배까지 시킨 이 상황을 다산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으며, 납득할 수 없으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다산으로서는 이전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더욱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해결할 힘이 현재의 자신에게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무력감을 절감하게 되고, 그 무력감은 또한 비애와 비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장기 시기 다산 시의 주요 정서가 시름이고 비탄이고 그리움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51) “<석지부>에서 다산은 공야장과 장횡거를 거론하여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말하였고, 한유와 소식을 언급하여 자신의 현재적 곤경을 넘어서는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김은미 (2020.12) 261쪽.

52)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이단론(異端論)』, 『퇴계학논총』 35집, 퇴계학 부산연구원, 2020.6, 66쪽

53) 김은미(2020.12) 243-245쪽.

다산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본다. 웃음이 나올 뿐이다. 세상일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처럼 책이란 책은 다 읽으며 의롭고 어질게 살고자 했지만,⁵⁴⁾ 결국 자신은 세상 물질 어두운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다.⁵⁵⁾ 강직하게 사는 것이 어렵더라는 토로,⁵⁶⁾ 어차피 덧없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 무의미했다는 회고⁵⁷⁾는 아프기까지 하다. 자신의 지난 삶을 부정당한 채 유배지로 내몰린 다산으로서는 부정당한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합리화해야 했다.

장기에서 처음 보았을 살아있는 오징어의 생태에 대해 시를 쓰면서도 다산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설명하려 했다. 오징어와 백로가 등장하는 「오죽어행(烏鯽魚行)」에서, 온통 하얀 모습의 백로가 오징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차피 물고기를 잡아먹을 텐데 청절(淸節)은 지켜서 무엇 하느냐며 자신의 성공적인 물고기 사냥법을 늘어놓고는, 백로에게 태도를 바꾸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백로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오징어의 말이 일리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늘이 결백함을 주었고 스스로도 결백한데 나를 바꿀 수는 없다, 이전처럼 꼳꼳이 서서 천명을 기다리겠다, 백로는 이렇게 말한다. 백로의 변⁵⁸⁾은 백로의 입을 빌린 다산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뒷맛은 씁쓸하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니 어리석은 너는 굶어죽어 마땅하다며 오징어가 먹물을 쏘고 가 버리기 때문이다. 먹물을 뒤집어 쓰는 봉변을 당한 백로, 지금 다산은 그 백로의 상황인 것이다.⁵⁹⁾

54) “茫茫義路與仁居 求道彷徨弱冠初 妄要盡知天下事 遂思窮覽域中書”, 「자소」 제3수,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55) “同胞未必皆同命 自笑迂儒闇世情”, 「자소」 제1수.

56) “骯髒深知涉世難 俳優叢集笑儒冠”, 「자소」 제5수.

57) “浮世論交問幾人 枉將朝市作情眞”, 「자소」 제4수.

58) “白鷺謂烏鯽 汝言亦有理 天既賦予以潔白 予亦自視無塵滓 豈爲充茲一寸 變易形貌乃如是 魚來則食去不追 我惟直立天命俟”, 「烏鯽魚行」,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59) 「오죽어행」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시에 등장하는 오징어와 백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징어와 백로가 보여주는 삶의 방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다산의 해명은 해당화⁶⁰와 수선화⁶¹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소동파의 시에 각각 차운한 이 시에서 다산은 자신을 고결한 해당화와 고고한 수선화에 비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더 이상 고고한 상태가 아니다. 꺾이고 짓밟힌 채 환란 상태에 놓여 있다. 다산은 이 시를 통해, 새하얀 수선화가 버려진 후에 거기에 개미떼가 덤벼드는 모습으로⁶²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그려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도 소식처럼 유배 생활을 무사히 잘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위를 얻고자 하는 심리”⁶³도 드러내었다.

다산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자신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 이 상황을 잘 견디어 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고심하는 이성적 사고가 그것이었다.

자신을 추스르려고 애쓰는 다산의 정서는 『아사고인행(我思古人行)』⁶⁴에서 옛 사람 거원과 소무, 한유를 소환하여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며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산은 그들의 삶을 떠올리며, 스스로 더욱 건실해지리라⁶⁵ 마음먹는가 하면 번뇌를 없애고⁶⁶ 자신의 그릇을 키우리라⁶⁷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마음을

식이 다르며 이때의 백로는 다산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 김인철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김인철, 『다산 우화시에 대한 실증적 고찰』, 『어문논집』 43집, 민족어문학회, 2001.6, 95-97쪽 참고.

60) 『偶至溪上 見玫瑰一樹嫣然獨開 因憶東坡於定惠院賦海棠花 遂次其韻』,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61) 『水仙花歌復次蘇韻』,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62) “一夜池館無人護 坐令哀恨纏衷曲 素質薦然委塵沙 行蟻劫劫來相觸”, 『水仙花歌復次蘇韻』.

63) 류소진, 『정약용의 유배 시기 화소시(和蘇詩)에 나타난 심리적 기제』, 『중국문학』 93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11, 240쪽.

64) 『아사고인행(我思古人行)』,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65) “自今勉力無大咎 我思古人行益健”, 『아사고인행』 제1수.

66) “自今勉力保天和 我思古人除煩苦”, 『아사고인행』 제2수.

67) “自今勿言萍梗悲 我思古人恢器宇”, 『아사고인행』 제3수.

다잡아 상황을 잘 견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갈 현실적 삶에 대한 이성적 고심은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에 나타난다. 다산은 환로가 차단되어 현실적으로 일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상적인 일민의 사례로 미원의 심씨를 생각한다. 다산이 “가문 중흥의 터전이 될 전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이상적 공동체의 복원을 회구”⁶⁸⁾했는지도 모르지만, 『미원은사가』를 통해 제시한 공동체의 삶은 매우 현실적이다. 실제적으로 그런 삶에 편입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산이 가진 일민에의 꿈이 “현실적 고려 끝에 나온 구체적 계획이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편으로 고심한 결과”⁶⁹⁾임을 보여준다. 즉 『미원은사가』는 일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다산이 일민의 삶을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탐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유배를 견디어 보겠노라 생각한 다산이지만, 그래도 바람은 해배(解配)에 있었다. 이런 다산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 꿈에서 본 괘에 대한 이야기이다.⁷⁰⁾ 다산은 꿈에서 운뢰의 구오가 바뀐 것[雲雷交九五]을 보았다. 제목에 의하면 원래의 괘는 수뢰준괘(䷆)였다. 그런데 구오가 바뀌었으니 다섯 번째 효(爻)가 양(陽)에서 음(陰)으로 바뀌어 수뢰준괘는 지뢰복괘(䷗)가 되었다. 지뢰복괘는 온통 음 일색이던 중지곤괘(䷆)에서 양이 하나 생긴 괘로, 이를테면 추운 땅 밑에서 따뜻한 봄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산이 보기에 이것은 희망의 신호였다. 자신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배가 풀리는

68) 심경호, 『다산의 <미원은사가>에 담긴 귀전원 의식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48호, 정신문화연구원, 1992.9, 114쪽.

69) 김은미, 『다산 정약용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 고찰 - 도연명 <도화원시(桃花源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9집, 퇴계학연구원, 2016.6, 112-117쪽.

70) “鷄林北部此羈栖 荷水茗山盡嶺西 枹棗熟時風淅淅 鷓鴣歸後日淒淒 書緣養疾唯流覽 詩爲傷和亦懶題 夢裏雲雷交九五 不逢詹尹可誰稽”, 『夢得屯之復聊題一詩』,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것이 아닐까 기대감을 가졌을 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다산은 조심스럽다. 굴원(屈原)이 진퇴(進退)를 물어보러 찾아갔다던 첨윤(詹尹) 같은 사람이 없어 꽤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면, 유보적인 태도로 시를 맺고 있다. 해배를 바라는 자신의 속내는 숨기는 것이다.⁷¹⁾

다산이 생각하기에, 장기 유배는 애초에 당쟁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 상황을 종식시키거나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그러니 잘 견뎌내자고 다짐하는 한편 가문의 앞날을 고심하면서, 조심스레 해배에 대한 바람도 가져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길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다산은 더더욱 자신의 문제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 유배기 다산의 시는 이렇게 자기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다산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다산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던 것이다.

2) 정조 시절에 대한 회고와 회상

자신의 유배가 당쟁 때문이었다는 다산의 인식은 지금이 아닌 이전이 옳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장기 시기 다산의 시에 정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장기 유배 초기에 쓴 『부용정가(芙蓉亭歌)』에서 다산은 과거를 반추하고 있다. 그 과거는 정조를 곁에서 모시던 시절이다. 시의 원주(原註)⁷²⁾를 보면 다산은 아직도 정조의 상(喪)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봄

71) 그러나, 결국 이 꿈은 현실과 반대였음이 드러났다. 이 시를 끝으로 다산의 장기 생활은 갑작스럽게 마감되었다. 다산은 서울로 소환되었고, 다시 국문을 거쳐 이번에는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다산 문집에 실린 이 시 다음의 시는 서울의 옥중에서 쓴 시이다. 다산은, 지뢰복괘를 보면서 품었던 자신의 희망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72) “乙卯季春 臣直宿監印所撰書 一日上御春塘臺 設賞花釣魚宴 臣叨承異渥 獲與盛筵 今眞游已遠 臣又流落窮荒 適當暮春 時物感愴 恭述此篇 以瀉於戲不忘之思”, 『부용정가』,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시의 주에서 다산은 상중에 곡하는 방식의 하나인 오희곡(於戲哭)을 환기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직 국상(國喪)이 1

구경이라도 다녀오라고 집주인이 일부러 권할 만큼, 이 무렵 다산의 모습은 타인에게까지 걱정을 자아낼 정도였다. 시 속의 다산은 사립문 밖까지 나갔다가도 눈물이 흘러 결국 되돌아설 정도로 감정이 불안한 상태였다.⁷³⁾

다산은 정조의 일을 떠올린다. 이 일은 『부용정시연기(芙蓉亭侍宴記)』⁷⁴⁾에도 따로 기록할 만큼 다산에게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기억이었다. 시에서 다산은 “군자의 도는 성장하고 소인의 도는 사라진다”라는 《주역(周易)》의 태괘(泰卦)⁷⁵⁾에 근거하여 성상의 덕을 기리는 한편, 그 성상의 곁에 있었던 자신의 규영부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이 열린 부용정에서 정조를 모셨던 그 봄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한데, 정조는 갑자기 승하했고 자신은 영남으로 밀려나와 영락한 처지에 놓여있다.⁷⁶⁾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인식은 정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오고, 그리움은 추억을 소환한다. 단옷날에도 마찬가지였다.

端午日述哀

단옷날에 슬픈 마음을 적다

舊日端陽日
恩頒自扇房

지난날 단옷날에는
선방(扇房)에서 부채를 내리셨지

주기 소상(小祥) 전이었다고[國恤未小祥] 적고 있다. 다산은 계속 정조의 상중(喪中)이었던 것이다.

73) “長鬢城東藥泉北 芳草如煙花似織 主人憐我長閉戶 勸我一出看春色 爲摘野蔬烹海鯪 帶酒一瓶貌欣然 試穿菅屨扶竹杖 黽勉隨至柴門前 躑躅欲行忽反顧 泫然淚落如秋雨 入門無語慘顏色 漠漠視天天地暮”, 『부용정가』,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 4.

74)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14.

75) “臣竊伏念 君之與臣 天尊地卑 苟君道太亢而情志不孚 則庶政叢脞 六氣乖戾而災異興矣 故天降地升曰泰 君子道長 小人道消 以其陰陽和 而邪惡不正之氣 無由乘之也”, 『부용정시연기』.

76) “嗚呼此事如昨日 欸忽收光燭疾 龍髯入雲杳莫攀 乳臺石獸寒蕭瑟 舊人流落在嶺南 松嵐草瘴常沈酣”, 『부용정가』.

內家新制作	궁궐에서 새로 만든 것이라
長夏故清涼	긴 여름이 그 덕분에 시원했지
漆澤摩來潤	칠 광택은 만질수록 윤이 나고
紅泥帖子香	붉은 인주 단오첩은 향기로웠지
如今瘴厲地	지금은 장독 기운 어린 곳에서
蚊蚋苦侵床	모기떼만 침상의 날 괴롭힌다네.

舊日端陽日	지난날 단옷날에는
承牌赴玉堂	패초(牌招)를 받들고 옥당에 갔지
徵詩必妙選	시를 짓게 하셔서 꼭 가작을 뽑았고
陳古略禎祥	옛 일 진술케 해 상서로움 취하였지
彩筆容規諫	채색 붓으로는 잘못 간하게 하고
朱符帶龍光	붉은 부적은 은총 띠었지
姓名題殿柱	전각 기둥에 성명을 써 두고
長得侍君王	길이 군왕을 모실 수 있었는데.

정조 생전에 다산이 보냈던 단옷날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더위를 쫓으라는 의미로 왕은 부채를 하사하고, 옥당에 모인 군신은 시를 지으며 단오를 함께 보냈다. 단옷날에 받은 부채와 단오첩, 붉은 부적은 왕의 사랑과 은총이었다. 길고 더운 여름도 그 덕분에 시원하게 날 수 있었다. 그렇게 군왕을 모시는 날이 길고 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정조는 이제 세상에 없고, 자신은 장독 기운 습하고 모기떼마저 달려드는 장기의 침상에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의 회상은 그 시절 삶의 배경이었던 한양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리움으로도 이어진다. 『하일견흥(夏日遣興) 8수』에서는 자신의 추억이 서린 한양의 여덟 곳, 세검정, 천연정, 유하정, 서향각 등에 얽힌 자신의 기억을 시로 썼다. 원주⁷⁷⁾에 따르면, 지금 다산은 소리 지르며 발광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다.⁷⁸⁾ 이럴 때마다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77) “暑月臥病擁塞 有懷漢陽樓亭 風門颯沓 無補 發狂大叫 然憶舊傷今 不失老杜秋興遺意云”, 『하일견흥 8수』,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커진다. 이 시는 그런 상황에서 쓴 것이었다. 그런데 8수 중 4수에 해당하는 읍청루, 망해정, 군자정, 세심대에 대한 기억에는 정조도 등장한다. 특히 마지막 수는, 세심대라는 공간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짓는 글에 대해 독보적이라 칭찬했던⁷⁹⁾ 정조에 대한 추억으로 끝난다. 다산은 단순히 한양의 공간만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한양의 공간과 연결된 정조와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조 시절에 대한 다산의 회고와 회상은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일이다. 다산은 정조 시절을 회상하면서도, 그 시절에는 왕의 교화가 백성에게까지 미쳤거나 그 시절 백성의 삶은 지금보다 나았거나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정조 시절을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그 그리움은 정조 곁에서 보냈던 자신의 추억으로 한정된다. 다산은 정조 시절의 좋았던 기억을 소환하여,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잠시 잊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가 아닌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정조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랬어야 할 만큼 유배의 시간이 다산에게 괴로운 시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삶에 대한 다산의 현실적 관심과 비판적 시선이 장기 시기에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한다.

3) 탈(脫) 관념적 현실 인식의 발아(發芽)

장기에 도착한 다산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되었다.

78) “暑月臥病擁塞 有懷漢陽樓亭 風門颯沓 無補 發狂大叫 然憶舊傷今 不失老杜秋興遺意云”, 『하일견흥 8수』 제4권

79) “咫尺揮毫稱獨步 幾回天語獎菲才”, 『하일견흥 8수』 제8수,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다산은 세심대에서의 이 기억을 평생 가지고 갔다. 스스로 찬술한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도 기록할 만큼 다산에게는 좋았던 기억인 것이다. “(…) 後數日 上幸洗心臺賞花 鏞又從焉 酒旣行 上賦詩 命諸學士廣和 內侍進彩牋一軸 上命鏞入御幕中寫詩 鏞於榻前抽筆 上以地勢不平 命安軸于御榻上寫之 鏞頓首不敢進 上亟命之 不得已如命 揮毫點墨 上皆遍視之稱善 其見待如此 (…)", 『자찬묘지명』,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16.

다산이 접한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물리적 환경이었다. 경상도의 궁벽한 바닷가 마을이라는 낯선 공간적 환경에 직면하게 된 다산은 이제 이 새로운 공간에서 살아야 했다.

다산이 접한 새로운 세계는 또한,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다. 다산은 이전까지 알던 유학자나 관료의 삶이 아닌 민(民)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유배 상황이기도 했으나, 오히려 그 덕분에 더 가까이에서 백성의 삶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장기 백성의 삶을 다산은 자신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았다. 서울 재상들이 해구신을 찾는다고 자주 연락해 오는 바람에 장기의 해구신 값이 폭등하는 상황을 시에 담은 것은 장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다산의 주목이며,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연주군 복유혈기(連州郡復乳穴記)』를 떠올리면서 뇌록 같은 특산품이 여전히 장기에서 나는 이유를 짚어보는 것은⁸⁰⁾ 목민(牧民)의 문제에 대한 다산의 사유였다.

이런 것들은 유배 이전의 다산으로서는 잘 알 수 없던 것들이었다. 유배 전에도 다산에게는 어사와 지방관의 경험을 통해 백성의 삶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관찰은 위에서 아래를 향한 관찰이었고, 백성을 교화하고 왕화를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 있는 위치에서의 제한된 목격이었다. 목민을 염두에 둔 상층의 교화자가 교화의 대상인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장기에서의 유배객 다산은 백성에 대해 더 이상 상하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스스로도 보수주인(保授主人)의 도움 아래 살아가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백성의 삶을 경험할 수는 있게 되었다.

80) “유종원은, 고갈 상태로 보고되었던 석종유(石鐘乳)가 연주자사 최공의 부임 이후에 복구되었다는 변화를 들어, 관리의 덕치가 백성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이 이 부분을 차용한 것은 표면적으로 종유혈과 뇌록의 소재적 유사성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 목민관의 태도에 대한 견해도 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은미 (2020.4) 158쪽.

장기에서 다산이 목격하게 된 백성의 삶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변화는 백성의 삶에 대한 다산의 관념적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다산은 유배 전에 『양강우어자(楊江遇漁者)』에서 ‘어향(魚香)’ 같은 시어로 어부의 삶을 형상화했는데, 장기에서 실제로 어부의 일상을 경험한 후에는 그 인식에 변화를 보인다. 생선 냄새를 향(香)으로 이해했던 이전의 인식은 현실에 기반한 비린내[腥] 생생한 어부의 삶으로 대체되었다. 백성의 삶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관념적 인식을 차츰 탈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⁸¹⁾

이런 변화를 보였던 다산이지만, 유배 초기의 『기성잡시』 이후로는 장기 시기의 시에서 별다른 관찰자적 시선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가사』에서는 해녀의 물질을 목격한 다산의 모습이 확인되고 『해랑행』에서도 솔피의 생태를 알게 된 다산의 모습이 엿보이지만, 이런 경험은 백성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대신 다산 자신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아가의 물질을 보며 환로의 위험성을 새삼 깨닫거나, 솔피의 공격적 생태를 보며 자신이 공격 당하던 그 세월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민의 삶을 지적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백성의 실질적 삶에 대한 예리한 관찰은 다산의 시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장기농가』에 이르러서야 다산은 자신이 경험한 백성의 삶을 시로 쓴다. 앞에서 살핀 대로, 이 시에서도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 농가의 일상적 풍경에 섞인 채 드문드문 나타나며, 그 어려움에 대한 다산의 비판적 각성도 선명하지는 않다. 이것은 현재 다산이 유배객의 처지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산이 처한 자신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 다산은 자기 문제에 몰두하고 있어서 백성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여유까지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작품의 편수가 적고 비판의 목소리가 예리하지

81) 김은미 (2020.4) 162-164쪽 참고.

않다 하더라도, 민의 삶이 다산의 관심 범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에서 다산은, 관노의 시비가 무서워서 수박을 못 심고 차라리 호박을 심는 백성들의 생활을 통해 아전의 횡포를 간접적으로 제기한다. 농사 잘 되기로 유명한 훈련원의 배추 농법을 장기 민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관념적으로 민의 생활을 볼 때는 알 수 없는, 수직적 관계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백성의 삶과 그 삶에 대한 각성이다. 담배나 배추 같은 구체적 작물과 그 재배법에 대한 대안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민의 생활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관심이 이 시기 다산 시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 시기 다산에게는 백성의 삶이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 유배기가 다산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으나, 한편으로는 민의 실질적 삶을 목격한 다산이 그 삶과 환경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비판적 각성을 키워나가는 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다산이 경기 암행어사 시절에 쓴 기민시(饑民詩) 『봉지염찰도적성촌사작(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⁸²⁾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1794년에 경기 지역 암행어사로 나갔던 다산이 적성촌에서 목도한 피폐한 백성의 삶을 시로 재현한 것이다. 시에 그려진 백성의 삶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폐가(廢家) 같은 가옥에서 사는 부부는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언 땅 속의 들냉이나 이웃집 술지게미를 생각해야 할 만큼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쉽지가 않다. 먹을 것이 없으니 계절에 맞춘 입성은 생각할 수도 없다. 사람과 가축이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낼 정도이니,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유별 같은 유가적 도리는 사치에 불과하다. 관향미를 쉰 것 때문에 나졸들이 들이닥칠까 전전긍긍하는데, 3살과 5살 아이는 군적에 올라 군역마저 져야 한다.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이다.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이다. 문제는 이것이 한두 집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82)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2.

시에서 다산은 구중궁궐(九重宮闕)이 깊어서 이들을 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궁이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궁에서 민이 멀어서 궁이 민을 살릴 수가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임금이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과, 임금이 아는데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임금이 알고는 있지만 궁궐과 백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대처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다산의 인식이었다. 실제로, 1794년에 10명의 암행어사를 경기 지역에 파견한 것도, 기근 때문에 힘든 백성의 삶을 살피도록 하겠다는 정조의 의지였다. 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그들을 일일이 살릴 수가 없어서 자신과 같은 암행어사를 보낸 것이라고 다산은 시에 썼던 것이다.

현장에 나간 다산의 눈에 들어온 백성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이에 대해 다산은, 한나라 직지사자(直指使者)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공수(龔遂)나 황패(黃覇) 같은 선정(善政)의 대명사들이 나선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지방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 앞에서, 스스로 어사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나 자신의 역부족을 깨닫는 것이다. 다산은 이런 상황을 왕에게 보고한다. 이 시를 써서 왕에게 상황을 알리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다. 시의 말미에 쓴 “정협(鄭俠)의 유민도(流民圖)를 본떠 시한 편 지어 임금께 바칩니다.”⁸³⁾라고 쓴 부분이 다산이 이 시를 지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백성들의 참혹한 삶을 시로 그려낸 것은 정조에게 상황을 알려서 참상을 수습하겠다는, 어사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시는 다산 자신의 비판적 현실 인식이 추동(推動)한 시라기보다는 정조에게 기근 이후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쓴 일종의 보고였다고 볼 수 있다. 구중궁궐이 깊어서 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진술도 시를 통해 궁과 민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보겠다는 다산

83) “遠摹鄭俠流民圖 聊寫新詩歸紫闈”,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

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며, 백성의 삶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 그렇게 뽑힌 했던 것도 보고라는 시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 시를 이해 하면, 다산의 기민시가 강진 유배기에나 다시 나타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경기 어사 시절 이후 강진 시기에까지 이르는 이런 시간적 공백은, 장기 유배기를 거치면서 짝튼 백성의 삶에 대한 다산의 실질적 인식이 차츰 구체화되어 나가는 데 걸린 시간인 것이다. 이런 현실적 인식과 비판적 각성은 강진 유배기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 비판적 사회시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다산은 경기 어사 이후 곡산 부사 등을 거치며 백성들의 삶을 보기는 했다. 그러나,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민의 삶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백성의 삶은 장기 시절에야 제대로 목격하게 되었다. 이전에 바라보았던 백성의 삶이 수직적 관계에서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관점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이제 장기에 유배객으로 머물게 된 다산은 이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백성의 삶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관념을 탈각한 이런 구체적 인식이 장기 유배기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후 강진 시기를 거치면서 현실 비판적인 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다산은 장기에서 220여 일을 머무는 동안, 향수와 그리움, 비애와 비판을 시에 썼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앞에서 가끔은 무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시기 다산의 주된 관심은 자신에게 있었다. 유배의 원인이 당쟁이라고 인식한 다산으로서는 유배의 상황을 수용할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 없는 유배의 충격 앞에서 더욱 자신의 문제에 집중했던 것이다. 자기 문제에 몰두하고 있던 다산은 때때로 정조 시대와 한양에

대한 그리움을 시에 담았다. 이런 회고와 회상의 정서는 그 시기가 옳았다는 인식과 함께, 현재 시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산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장기 유배기 다산의 시는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런 향내적 시선의 시였다.

다산은 향외적 시선의 시를 통해 세계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고 있다. 장기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관찰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배 전에도 다산은 백성의 삶에 관심이 있었으나, 그것은 교화의 주체로서 교화의 대상인 민에 대해 갖는 관심이었다. 수직적 상하 관계에 입각한 다소 관념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장기 유배기의 다산은 백성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시에서도 이전과 달리 민의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장기 시기에는 그런 ‘세계’에 대한 관심이 다산 자신의 문제보다는 크지 않았다. 자신의 문제가 이 시기 다산에게는 너무 크고 무거웠던 것이다.

흔히, 다산이 유배 상황에서 현실 비판적인 시를 남겼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지향한 것이 다산의 문학관이라고 이해하지만, 적어도 장기 유배기의 시는 그런 선입견과는 차이가 있다. 실질적 첫 유배였던 장기 유배에서 다산은 자기 문제에 몰두하는 향내적 시선의 시를 많이 쓴 반면, 향외적 시선의 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남겼다. 이것은 이 시기의 다산이 유배의 충격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침잠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충격이 채 완화되기도 전에 다산은 다시 서울로 소환되었고 곧이어 강진으로 또다시 유배되지만, 장기에서 싹뻗던 비판적 각성은 강진 시기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예리해져서 훗날 현실 비판적인 사회 시로 형상화된다.

경세가이자 비판적 지식인이었던 다산도 첫 유배의 충격 앞에서는 자기 문제에 몰두한 한 인간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선입견 없이 작품 자체로부터 작가의 정서를 포착해낸 의의가 있지만, 장기 유배기의 시가 강진 유배기 시에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다산 시문학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장기 유배기 시의 위치를 부여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두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국역 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 『정본 여유당 전서』, 서울;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김나혜, 「다산의 우화시 연구-오죽어행(烏鰐魚行)·이노행(狸奴行)·충식송(蟲食松)·해랑행(海狼行) 등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 문화』 53권,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2013.8. 291-314쪽.
- 김봉남, 「다산의 장기(長鬢) 유배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諸樣相)」, 『한국문학연구』 38권, 한국문학회, 2006.12. 365-395쪽.
- 김봉남, 「다산 정약용 시에 나타난 두보시(杜甫詩) 수용양상 (1)-차운시(次韻詩)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9집, 대동한문학회, 2019. 123-164쪽.
- 김상홍, 「정다산(丁茶山)의 사회시(社會詩) 연구」, 『국문학논집』 9집, 단국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78. 133-162쪽.
-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이단론(異端論)」, 『퇴계학논총』 35집, 퇴계학 부산연구원, 2020.6. 57-76쪽.
- 김윤규, 「장기(長鬢) 유배기 다산 시의 성격」, 『동방한문학』 57집, 동방한문학회, 2013. 253-281쪽.
- 김은미, 「다산 정약용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 고찰 - 도연명 <도화원시(桃花源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9집, 퇴계학연구원, 2016.6. 117-146쪽.
- 김은미, 「<기성잡시(鬢城雜詩)>에 나타난 다산의 두 가지 시선」, 『한국문학논총』 84집, 한국문학회, 2020.4. 141-170쪽.
- 김은미, 「다산 <석지부(惜志賦)>에 대한 고찰」, 『퇴계학보』 148집, 퇴계학연구원, 2020.12. 231-266쪽.
- 김인철, 「다산 우화시에 대한 실증적 고찰」, 『어문논집』 43집, 민족어문

- 학회, 2001.6. 87-122쪽.
- 김홍규, 「다산의 문학론에 있어서의 도(道)와 문(文)」, 『현상과 인식』 2권 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78.4. 85-97쪽.
- 류소진, 「정약용의 유배 시기 화소시(和蘇詩)에 나타난 심리적 기제」, 『중국문학』 93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11. 235-254쪽.
- 송재소, 「다산의 우화시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3호, 한국한문학회, 1978. 185-197쪽.
- 송재소, 「다산 정약용의 문학론」, 『대동문화연구』 1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4. 139-150쪽.
- 송재소, 『다산시 연구-부(附) 다산연보(茶山年譜)-』, 서울;창작사, 1986.
- 심경호, 「다산의 <미월은사가>에 담긴 귀전원 의식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48호, 정신문화연구원, 1992.9.
- 윤석화, 「다산의 사언고시(四言古詩)에 나타난 《시경(詩經)》의 수용양상」, 『한문학논집』 40집, 근역한문학회, 2015. 109-138쪽.
- 장진엽, 「다산 정약용의 제화시 연구」, 『동양학』 84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39-68쪽.
- 전경원, 「다산 정약용의 사언시(四言詩)와 시경론(詩經論) 및 시인식(詩認識)의 상관성」, 『우리어문연구』 28집, 우리어문학회, 2007.6. 223-252쪽.
- 정우봉, 「조선후기 문예이론에 있어 취(趣) 개념과 그 의미」, 『한문학보』 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417-444쪽.

<Abstract>

Direction (向方) and Character of Dasan's Poems in the Janggi (長髻) Exile Period

Kim, Eun-Mi*

Dasan Jeong Yak yong was involved in the Shinyu Saok in 1801 and lived an exile life for 220 days in Janggi, Gyeongsang do province. In that the Janggi exile, which was practically the first exile for him, became an inflection point in Dasan's life,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hole Dasan poetry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and character of Dasan's poems during this period.

Dasan left 160 works of poems in 60 themes during the three seasons of his stay at Janggi, and he wrote more poems from the introverted (向內的) perspective about his issues called exiles than poems from the extroverted (向外的) perspective, which contained concerns about the difficulties of folks and experiences of the new environment. Dasan, who was in involuntary isolation, continued to reveal his longing and nostalgia, woe and lament through his poems, and in particular, he characteristically showed the sentiments of retrospection and reminiscing about the days of King Jeongjo and Hanyang.

The exile was an opportunity to get a closer look at the life of folks, but the concern and agony for folks' life is more euphemistic than expected in Dasan's poems from this period. Although it is

* Pusan National University

confirmed that folks' lives have become more realistic than before his exile, but at this time, Dasan's awareness of the difficulties of the folks was no greater than his concerns about his own current situation.

While at Janggi, Dasan was preoccupied with his issues amid the shock of his exile. The folks' life became more realistic than before, but it was difficult for him to express an active and critical interest in the world in his poems. For Dasan, a statesman and critical intellectual, the impact of exile was just as great. Even before the shock could be alleviated, Dasan was summoned to Seoul and exiled back to Gangjin. The practical and realistic experience of the folks' life inherited internally through the Janggi period was embodied as a critical awakening through the Gangjin exile period afterwards and appeared as realistic critical poems.

Key Words: Dasan, Jeong Yak yong, Shinyu Saok, Poetry written during exile, the Janggi Exile Period, King Jeongjo, Poetry that criticizes social reality, Poetry written like a fable, Poetry about hungry people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09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19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